

RSS : Using RSS for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 The Case of France

Eunjoo Carre, Na

▶ **To cite this version:**

Eunjoo Carre, Na. RSS : Using RSS for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 The Case of France.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 2007, 38 (4), pp.119-143. ⟨halshs-00271570⟩

HAL Id: halshs-00271570

https://shs.hal.science/halshs-00271570

Submitted on 9 Apr 2008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Author manuscript, published in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정보관리연구) 38, 4 (2007) 119-143"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도서관 정보서비스 향상를 위한 RSS 기술의 응용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Using RSS for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 The Case of France

나은주*

Eun-Joo Na

차례

1. 서론
2. 기관 보유자료 정보제공 : 기존서비스의 형태변화
   2.1. 공지. 행사
   2.2. 신착자료 정보나 신간 정보
   2.3. 온라인 자료 정보
3. 기관 미보유 정보 제공 : 정보지기 서비스
   3.1. 유용 웹사이트 정보
   3.2. 관련 분야 필수정보
   3.3. 관련 분야 신간 정보
   3.4. 관련 분야 시사 정보
4. 개인 정보지기 도구
   4.1. 검색엔진 Exalead
   4.2. 정보편집기 Google 리더
   4.3. RSS 집적기 Netsvibes
   4.4. 정보서비스 기관 웹사이트의 개인화 기능 제공
5. 결론
· 참고문헌

초록

새로운 기술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는 웹사이트에 갱신되는 정보를 신속히 전달-교환하게 해주는 도구로써 많은 정보를 갱신과 동시에 받아볼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통로를 통해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적절하게 포착-전달하는 “정보지기” 작업이 정보서비스계에 신종 서비스로 거론되고 있는데 RSS 기술은 이 정보지기 작업에 여러모로 유용하다. 프랑스에서 RSS 를 도서관 또는 더 넓은 의미의 정보서비스에 응용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새로운 정보서비스 개발에 다소나마 아이디어 제공이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RSS, 정보지기, 웹 2.0, 라이브러리 2.0, 디지털 도서관, 신기술, 정보서비스, 정보공유, 정보개방, 정보활용 개인화, 정보활용 전문화, 다이나믹 웹사이트, RSS 편집기. RSS 리더 , 블로그, 개인화, 이용자 참여

*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정보책임전문원
(Ingénieur d’études, Centre de Recherches sur la Corée, Ecoles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carrenej@ehess.fr)

· 논문접수일자 : 2007 년 8 월 17 일
· 게재확정일자 : 2007 년 11 월 27 일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ABSTRACT

The new technology,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allows people to send and receive a lot of up-to-date information by constant monitoring websites and databases for new information, without having to visit the site or database. The "gatekeeping" task for capturing and delivering various information influx via new digital channels as speedy as possible, is being discussed as a new form of servic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rvice system nowadays. Given this situation, the RSS tool can be greatly useful in the gatekeeping task. This paper, by analyzing concrete cases in which RSS is actually employed in libraries and also newly applied to other diverse information services in France, expects to provide insightful ideas for developing innovative information services in other countries.

KEYWORDS

RSS, Gatekeeping Information, Web 2.0, Library 2.0, Digital Library, Information Sharing, blog, User Participation

1. 서론

통신정보분야의 새로운 기술 발달로 정보서비스 분야에서도 끊임없는 개혁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몇년 전부터 웹 2.0 시대가 거론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이용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술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2004 년 O'Reilly 가 제시한 웹 2.0 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지칭한다. 구중억, 이응봉 (2006)은 비교표를 통해서 1.0 시대와 2.0 시대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보서비스의 형태가 도서관과 같은 서비스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하는 수동적 대상에서 상호 작용의 동적인 서비스의 중심으로 변환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보의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

정보의 개인화를 통해서 "누구나 정보를 만들고 전파하는 주체가 되며 누구나 정보를 자유롭게 옮기고 활용하는 것(문용은, 2007)"을 핵심으로 하는 웹 2.0 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문용은(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웹 2.0 의 세 가지 특징은 '공유, 분산, 참여'다. 웹 2.0 은 "공유 혹은 개방성 (openness)"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분산 혹은 연결성(connectivity)"에 따라 "정보와 정보 간의 연계성, 사람과 사람 간의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ivity)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밖에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참여 및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이다. "정보가 개인의 참여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트(user created contents)와 이용자 집단의 능동적인 참여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수동적이었던 이용자가 정보의 생산자가 될 뿐 아니라 이용자 개인의 개별적인 필요와 기준에 따라 여과되고 정제되어 생산된 정보는 공유와 상호연계성을 통해 다시 다른 이용자가 선별-정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됨으로써 끊임없이 자체 변화 발전을 통해 거듭나면서 "집단지성"을 이루어 나간다.

웹 2.0 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로는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비롯하여 Tagging(꼬리표 달기), RSS, AJAX 들이 있는데 문용은(200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콘텐트가 마이크로 콘텐트(micro-contents)로 분화되는 것에 의해 가능해지는 에플리케이션"인 RSS 는 "웹 2.0 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 RSS 기술은 정보들의 개별적인 선택과 활용, 그리고 공유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RSS 기술은 1999 년에 최초로 등장하여 크게 3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며 RSS 1.0, RSS 2.0, ATOM 1.0 버전이 등장했고 2005 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도서관계 및 정보서비스업계에서도 응용연구가 시작되었다. RSS 기술은 웹사이트에 갱신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도구로써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급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RSS 를 등록해 놓으면 웹사이트 상에 새로운 정보가 갱신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알 수 있다. 이용자는 RSS 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자동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RSS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집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RSS 기술이 정보서비스에 응용된 예를 살펴봄으로써 RSS 기술이 정보서비스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어떠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유용성과 응용가능성을 탐구해보는 것이다. 기존의 정보서비스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만 바꾸어 RSS 를 응용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새로운 정보서비스로서 '정보지기'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지기' 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기관차원에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정보지기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하면서, 정보서비스 기관에게는 이용자 중심의 웹 2.0 세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기관의 웹사이트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화 페이지 제공을 제안하고자 한다.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2. 기관 보유 정보 제공 : 기존 서비스의 형태 변화

도서관과 같은 정보서비스 기관의 주요 임무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전달되는 정보의 성격은 당연히 기관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기관의 내부 소식이나 자기관 출판물,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될 것이며 그 전달 형태로는 웹사이트 공지사항란과 함께, 이용자 등록을 통해서 이메일로 전달해 주는 뉴스레터가 기존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미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단지 전달 방식만을 바꾸어 RSS 형태로 제공한다면 정보 개방 측면에서 큰 효율을 얻게 된다. 단순히 이 RSS 를 개인 편집기에 등록함으로써 이용자가 매번 사이트에 와서 보거나 메일을 확인하지 않고도 RSS 를 통해서 정보갱신과 동시에 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RSS 를 자기관 웹사이트에 삽입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는 제공하는 기관의 웹사이트에만 한정되어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보급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갱신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RSS 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사례 1-1) 그 용도에 따라서 분리하여 각 분야별로 RSS 를 제공한다면 (사례 1-2 와 2-2) 이용자에게 더 편리할 것이다. 나아가 사례 2-3 처럼 신착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까지 같이 제공할 수도 있다. 이용대중의 폭이 넓은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더 다양하고 폭 넓은 자료를 다루므로 상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자료의 성격을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상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각 신착자료의 상세정보를 직접 생산할 필요 없이 출판사 등과 연계하여 RSS 응용을 통해 자동적으로 보급받을 수 있다.

2.1. 공지. 행사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기존 서비스로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이용안내에 관한 정보와 시기별 정보 등의 공지 사항과 각종 행사 소개 등이 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시 행정, 시 문화행사 등도 포함되며 보다 대중성있는 주제, 유아-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들도 다룬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대학 행정 및 학사일정, 학교행사, 학생들의 진로나 복지에 관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 전문연구 기관의 경우는 특정 분야의 학술행사, 연구프로그램 등이 주요 전달 정보가 된다.

사례 1- 1 : 웹사이트 전체의 새소식 전달

데카르트 대학 (파리 5 대학) 도서관의 RSS 는 웹사이트 전체를 통해 갱신되는 새소식을 전해준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가 여러 면과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떤 면이나 층에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새로운 소식이 실렸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RSS 를 이용하면 일일이 각 면이나 층을 방문해보지 않고도 갱신된 정보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사례 1-2 : 도서관 일반 소식과 신착도서 정보를 구분하여 전달

앙제대학 도서관은 도서관 일반 소식을 전하는 RSS 와 신착도서 정보를 전하는 RSS, 두가지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2.2. 신착자료 정보나 신간 정보 전달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인 신착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도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같이 폭 넓은 대중을 고객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표지 사진이나 작가 소개를 같이 서비스하기도 하고 자료에 대한 자세한 소개나 내용 요약을 제공하여 독자의 선택을 돕기도 한다(사례 2-3). 신간 정보서비스는 주로 출판사나 자료 제작사에게 해당 되는 일이지만 기관 자체의 출판물이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경우도 자체 정보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 중앙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신간 정보를 RSS 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팡테옹아싸스대학 : 신착순서별



<그림 2> 리옹 3 대학 : 분야별 RSS 제공

사례 2-1 : 순서별 신착자료 정보 제공

팡테옹아싸스대학 <그림 1> 은 두달마다 새로 들어온 자료에 대한 소식을 등록된 일련번호순으로 전한다. 신착자료의 규모가 크지 않고 분야가 한정적일 때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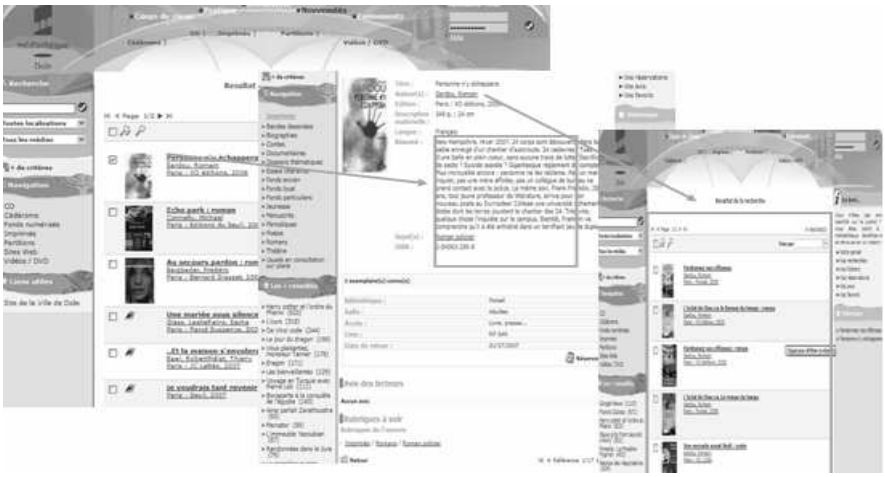
사례 2-2 : 분야별 신착자료 정보 제공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그림 2> 의 리옹 3 대학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착자료 정보는 분야별로 나뉘어있다. 여러 분야가 함께 있는 규모가 큰 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지기 작업에 매우 유익한 서비스다. 특히 여러가지 정기간행물이 있을 경우 간행물 타이틀별로 RSS 를 제공해주는 것이 이용자에게 편리하다.

사례 2-3 : 세부정보와 함께 신착자료 소개

도올(Dôle)시립도서관 <그림 3> 의 경우를 보면 자료 소개에 표지 사진과 작가 소개, 내용 요약, 같은 작가의 다른 책리스트 등을 덧붙여 여느 온라인 서점 못지 않은 서비스로 고객을 안내하고 있다. 웹사이트 디자인 면을 조금 언급하자면 자료 표지의 사진 등 상세정보는 모두 도올 시립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점이나 출판사 등과 협정을 맺고 RSS 를 통해 지원받는 정보이다. 즉 RSS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서로 교환 공유함으로써 같은 정보를 여러기관에서 제각기 중복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도올 (Dôle) 시립도서관 : 표지, 작가소개, 요약 등

2.3. 온라인 자료 정보

기관 보유정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시청각자료, 디지털 자료, 온라인 강의나 컨퍼런스, 온라인 전시회 등이 있다. 통신교육 전문 기관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 대학이나 교육 기관에서도 온라인 강의 개발이 늘고 있어서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는 강의지원서비스도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같은 정보서비스 기관에서도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장서를 디지털화시켜 보급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사례 3-1 :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전시 정보 전달

리옹시립도서관은 많은 문화행사를 주관한다. 유명 작가나 전문가들을 초청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시회를 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컨퍼런스와 전시회의 소식을 RSS 로 전달하며 지난 행사들에 대해서는 저자의 이름이나 주제어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검색엔진을 제공한다.

사례 3-2 : 온라인 대학 강의 목록과 채널 정보 전달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통신교육이 발달되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교육 역시 거대한 온라인 대학 조직망으로 구성되었다. 프랑스 교육부가 주관하는 포털사이트 <그림 4> 는 온라인 대학의 소식, 새로운 강의, 생방송 채널의 3 가지 RSS 를 제공한다.



<그림 4>온라인대학 Canal U :
새로운 강의 목록 채널



<그림 5> 고등교육부시청각자료센터 :
기관소식, 새로운 시청각자료 소식

사례 3-3 : 시청각 자료 전달

프랑스고등교육부가 주관하는 시청각자료 센터 <그림 5> 는 각종 교육용 시청각 자료를 제공한다. RSS 와 함께 포드케스트를 함께 제시하고 내용면에서는 기관 소식, 입찰 소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용 동영상을 mp3 나 비디오 등 여러가지 형태로 제공한다.

3. 기관 미보유 정보 제공 : 정보지기 서비스

많은 정보서비스 기관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기존의 서비스를 효율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개방하는 것외에도 새로운 정보서비스에 대한 사명을 인지하여 업무개발에 노력을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기관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 상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운데 고객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전달하는 '정보지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어로는 veille documentaire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서비스를 본인이 "정보지기" 작업이라고 번역했다. 문지기나 등대지기처럼 정보 세계를 항상 주의하여 살핀다는 의미다. 인터넷과 다양한 웹 2.0 의 도구들의 발달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이 온라인 상에 쏟아져나옴에 따라 도서관 밖에 넘치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이용자에게 보다 적절하면서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보서비스자의 새로운 사명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물론 이용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보지기 서비스의 가능한 내용으로는 유용사이트 정보, 법률 정보나 시장 정보같은 관련 분야 필수 정보, 그리고 학술 정보기관의 경우는 학술행사정보나 신간 정보, 정기간행물 목차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작업을 돕는 것에서 부터 조금 폭 넓게 연구그룹의 주제에 관련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변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까지 정보지기 작업에는 그 상세함의 정도나 수집 영역폭에 차이가 있다. 개별적인 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는 그 정보의 수집이나 선택 기준이 매우 첨예할 수 있다. 이미 공식적으로 정보지기 서비스를 시작한 몇개 안되는 기관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 국립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개별 정보지기 서비스는 이용자의 주문을 받아서 유료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들은 기존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맞춤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개인의 관심분야에 해당하는 핵심어 등 기준을 등록해 두면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들어올 때마다 알려주고 있다. 맞춤서비스 역시 고객의 개인적인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좀더 개별화된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보의 폭이 이미 도서관에 소유하고 있는 자료로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 정보지기 작업과 차이가 있다.

개별화된 정보를 서비스하는 형태로는 이용자의 등록에 의한 이메일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 개별기준에 따른 검색결과를 RSS 로 제공하거나 웹사이트에 내장시켜 자동갱신되게 하는 방법(사례 4 와 5)이 있고, 또는 블로그나 블로그 포털 형태(사례 6)를 이용하여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RSS 를 통해 이용자가 참가하거나 다시 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3.1. 유용 웹사이트 정보

특정 분야의 정보를 찾는 사람은 한 기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 여러 기관에서 정보를 찾는다. 한 기관의 웹사이트에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관의 웹사이트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관련된 다른 기관들의

웹사이트 주소들을 모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기관들에서 새로운 웹사이트 소식을 올렸는지 보기위해서는 각 기관의 웹사이트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보아야 하는데 이용에 매우 불편하다. 이 유용 웹사이트들의 리스트를 하나로 모아주고 여러기관들이 새로 추가하는 주소가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용자가 매번 모든 관련 기관의 각 리스트들을 가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줄 것이다.

사례 4-1 : 여러 기관의 유용 웹사이트 리스트를 종합, 갱신되는 주소 전달

여러 고등교육 기관의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프랑스 고등교육부 시청각 자료센터 (CERIMES) <그림 6> 에서는 각 기관들이 수집해 전하는 유용사이트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달해 주는데 검색엔진과 함께 분야별로 분류한 리스트를 통해 서비스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새로 올리는 웹사이트 정보가 있을 경우 갱신과 동시에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RSS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 고등교육부 시청각자료센터 : 여러 도서관의 웹사이트 모음

3.2. 관련 분야 필수정보

각 분야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법률 정보라던가 시장 정보, 연구나 교육 기관에는 학술행사나 출판 정보같은 것도 필수정보의 하나다. 이러한 정보를 모아서 빨리 전달해주는 서비스도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할 뿐아니라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하여 효율적인 정보공유 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

사례 5-1 : 관련 분야 법률 정보 전달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팡테옹 소르본느 대학의 법학과 고급 전문과정(DESS)에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법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사례 5-2 : 관련 분야 시장정보 전달



<그림 7> 쿠프랭 (couperin) : 디지탈 자료 정보와 그 시장정보

Couperin <그림 7> 은 디지털 자료 공동 구매를 위한 기관 협력체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정보와 협상 진행과정, 협정 내용, 테스트 중인 자료 등에 대한 소식을 전달한다.

사례 5-3 : 관련 분야의 학술행사를 종합 전달

사회과학분야의 학술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발간하고 있는 revues.org 에서는 사회과학분야 학술행사를 소개하는 칼렌다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행사 정보는 주제별 분류와 시대별 분류로 제공되어 있어서 « 중세 »를 선택하면 중세역사에 관한 학술 정보 소식을 모두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학술 기관인 중세 역사 연구소 사이트에서는 연구소 행사와 관련된 특정한 주제의 행사들을 소개하면서 revues.org 의 칼렌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관련된 분야의 두 사이트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예다.

사례 5-4 : 연관된 웹사이트들 간의 중복되는 정보를 자동 전달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한국연구센터(CRC)의 웹사이트는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로 운영되는 가벼운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직접 RSS 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외관상으로는 RSS 기술을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일부는 RSS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림 8> 왼쪽의 한국연구센터 웹사이트의 첫째 면에는, 오른쪽 콜론에 연구소의 학술행사 정보가 소개되고 있다. 이 학술행사 정보는 한국연구센터의 웹사이트에 소개되고는 있지만 그 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웹사이트로부터 자동전달되는

것이다. 해당 학술행사 정보가 한국연구센터 사이트가 아닌 본교의 사이트 에만 한번 입력되면 그 정보는 학교 사이트에 다른 연구소의 학술정보와 함께 소개됨과 동시에 한국학에 관련된 정보만을 골라 한국연구센터 사이트로 전달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두 사이트를 연결하는 고리는 RSS 이다. RSS 기술을 이용해 웹사이트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연관성이 있는 웹사이트들 간에 중복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8>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 학술행사안내

3.3. 관련 분야 신간 정보

기관에서 자체 출판물이 있어서 그 신간들을 소개할 경우는 기관 보유자료제공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고 전문 연구기관같은 곳에서 진행 중인 연구주제에 관련하여 외부에서 출간된 최근 신간 정보를 찾아 전달할 수도 있다. 다음에 볼 사례 6-1,2 와 사례 7-1 은 본인이 시험적으로 시작해 본 세 가지 정보지기 서비스의 예로 블로그를 전달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례 6-1 : 관련 분야의 신간 정보 전달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정보지기 서비스는 연구소의 5 개 스터디 그룹의 주제에 관련되는 신간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주고자 각 출판사나 서점 등으로부터 수집한 신간 정보를 모아 소개하고 있다.

사례 6-2 : 관련 분야 정기간행물 목차 서비스

단행본의 신간뿐 아니라 정기간행물 소식과 그 목차까지 서비스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학술원 한국연구센터의 정보지기가 제공하는 두번째 정보지기 서비스는 연구센터에서 구독하는 정기간행물의 목차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3.4. 관련 분야 시사 정보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시사 정보 또한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이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연구 주제들이 시사문제나 다양한 사회현상 들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연구 주제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토론 주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여론들에 대한 정보 또한 중요하다.

사례 7-1 : 관련 분야 시사 정보 전달

연구팀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현상이나 여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해서 전달해 주는 서비스가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의 세번째 정보지기 서비스 예이다.

사례 7-2 : 시사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과 참고 도서 제공

<그림 9> 의 리옹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시사 정보를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사 소식 중에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시사문제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선정하여 추천해주고 있다.



<그림 9> 리옹시립도서관 : 시사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관련 참고도서 소개

사례 7-3 : 블로그, 간편한 정보전달 도구

사례 7-1 과 7-2 는 선별된 시사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다. 개인이 간편하게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도구로, 최근에 사용이 증가하면서 정보의 개인화와





공유라는 웹 2.0 의 경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로그들은 기본적으로 RSS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블로그 제작자가 새로 입력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준다.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전문 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는 개인 웹페이지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전문분야의 특수지식을 교환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점차 많아 지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거나 전문 웹마스터를 두지 못하는 작은 기관의 정보 전달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프랑스의 Lyon-la-forêt 는 주민이 1 천명 정도 되는 작은 읍 도서관으로 도서관 소식 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 소식들을 블로그를 통해 전함으로써 기관의 공공연한 웹사이트 역할을 했다. 또한 정보서비스계에서 일하는 정보관리 전문가, 사서들이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담들을 나누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고 실제로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더 빠르고 더 많은 유용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Wikipedia 에 프랑스 정보관리 전문가들의 블로그 일부가 소개되어있다. 더구나 이제는 그런 블로그들을 모아 놓은 블로그 포털 사이트들<그림 10>,<그림 11> 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포털들은 각 블로그들의 RSS 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림 10> 블로그포탈 : 분야별 RSS 제공

<그림 11> 블로그포탈 : 블로그별 소개

다음의 두 사례 (7-4 와 7-5) 역시 특정 주제에 대한 시사 정보를 전달하지만 블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정보서비스 기관의 웹사이트의 한 면에 시사 정보 기관에서 제공하는 RSS 를 삽입하여 넣어두면 시사 정보가 갱신됨과 동시에 정보서비스 기관의 웹사이트 페이지에서도 자동적으로 새소식이 나타난다.

사례 7-4 : 특정 분야 관련 미디어 소식 전달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그림 12> 도올 (Dôle) 시립도서관 : 미디어 시사 정보

도올 시립도서관 <그림 12> 에서는 음악, 문학, 영화, 세 분야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전문 잡지나 방송, 웹사이트, 일간지 문예란 기사 등을 모아서 그 분야의 새로운 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RSS 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 7-5 : 관련 분야 전문 잡지나 기관들의 소식을 종합전달

<그림 13> 의 삐에르 마리 퀴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는 신착정보, 온라인 자료정보, 유용사이트 정보, 새소식에 대한 4 개의 RSS 를 제공한다. 이 중에서 새소식은 웹사이트 첫면으로 이용되는데 내용은 자체 생산물이 아니고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들로 자동형성된 것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 잡지나 기관들의 RSS 로 가져다 그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물론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올 때는 이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항상 그 출처를 소개해야 한다.



<그림 13> 삐에르마리퀴리 대학 : 시사정보 출처 목록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4. 개인 정보지기 도구

위에서 사례 6-1, 6-2, 7-1 을 통해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정보지기의 예 세 가지를 보았다. 새로운 정보서비스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시험삼아 만든 작품이다. 물론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전산팀이나 본원의 웹사이트에 대한 의존없이 한 개인의 생산품이라는 것은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거론하기 전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시험사례 경험를 중심으로 정보지기의 기본 과정인 수집-편집-전달에 필요한 도구들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도구들을 '개인정보지기 도구'라고 굳이 지칭하는 이유는 기관 단위의 거대한 규모의 시스템이나 인프라구조가 없이 개인차원에서 이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센터 연구원들에게도 이 도구들을 소개하면서 연구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개인 정보지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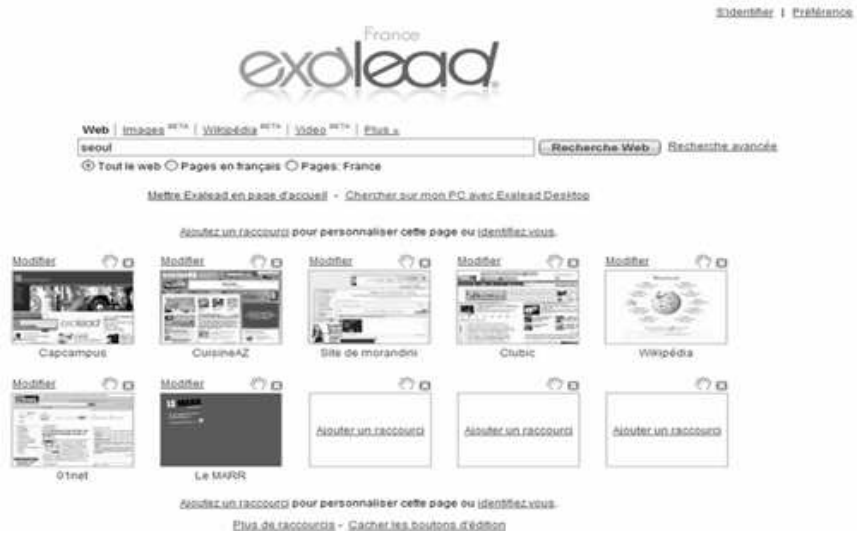
4.1. 검색엔진 Exalead

정보지기 실행의 첫 단계는 정보의 수집이다. 실행 전단계로 물론 정보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필요를 분석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이 실행 전단계가 사실은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단계로서 기계화된 작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 기관의 성격과 조직, 기관 이용자의 기대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또한 갖추고 있는 전문 정보관리원의 능력을 필요로하는 부분이다. 정보지기 작업의 첫단계인 정보수집에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의 출처를 잘 알고 있고 적합한 정보의 선택 기준을 작성하고 선별할 능력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정보지기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실행방법론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관리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위에서 RSS 를 정보서비스에 응용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RSS 기술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뿐만이 아니라 수집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RSS 로 제공되어 있다면 정보수집 작업이 훨씬 용이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다. 아직은 많은 정보가, 특히 특정 전문 학술 분야일 수록 RSS 화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드문 실정이기 때문에 정보수집 작업이 실제로는 전문 정보관리원이 여러가지 검색엔진을 이용하고 여러 기관의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수동작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RSS 형태로 전달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RSS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 가운데 하나인 검색엔진을 보기로 한다. 검색엔진 가운데서도 Feedster, Technorati, Easy RSS 같은 RSS 전용검색 도구들이 있지만 일반 검색엔진이면서 RSS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예로 Exalead 를 보기로 하자.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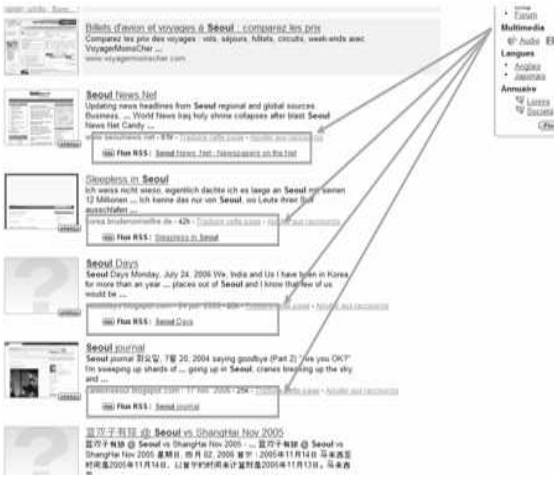
프랑스에서 만든 검색엔진 Exalead는 현재 일반 검색엔진으로 사용되며 지난 6월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의 학술자료 아카이브인 HAL(Hyper Article en Ligne)과 협력을 체결함으로써 학술자료 전문 검색엔진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그림 14> 검색엔진 Exalead



<그림 15> Exalead : 검색결과 내 검색



<그림 16> Exalead : RSS 검색

이 검색엔진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이용자가 자주 즐겨찾는 사이트의 화면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그림 14>. 또 다른 독특한 기능은 검색 결과에 각 사이트의 화면을 보여주며 검색결과 옆에 상세검색메뉴를 제시하여 오디오나 비디오 등 특수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이 중에는 RSS 검색 기능도 있어서<그림 15> RSS 라고 된 링크를 누르면 검색된 사이트 가운데 RSS 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를 보여준다<그림 16>.

검색엔진 이외에 RssReporter, Plazoo, Lamoooche 와 같이 RSS 주소들을 모아 놓은 종합목록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상업용 전화번부처럼 RSS 주소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놓았고 이용자가 RSS 가지고 있을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Lamoooche 는 신규 등록 RSS 리스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Plazoo 는 최근 검색된 RSS

주소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합목록들은 아직까지는 구직이나 오락 등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주제에 적합하지만 첨예한 연구 주제들에 관한 정보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4.2. 정보 편집기 Google Reader

일단 필요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RSS 를 찾아 수집해 놓은 후에는 이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편집과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도 물론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정보관리원의 능력이 필수적이고, 선별 작업에는 정보지기자의 판단이 필수적이지만 자동 편집기는 작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이 도구를 RSS 리더 (RSS Redear)라고 부르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록된 RSS 의 정보를 단순히 읽어만 주는 리더와 선택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는 편집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단순 RSS 리더 로는 Bloglines 등 많은 제품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서비스에서 RSS 리더를 제공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고있다. 리더 안에 수집한 RSS 등록해 놓을 수 있고 Bloglines 의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디렉토리를 만들어 수집한 RSS 리스트를 분류해 놓을 수 있지만 RSS 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선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Google Reader<그림 17>는 등록된 RSS 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보들을 선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등록한 RSS 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쌓이는 정보들을 훑어보면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공유' 표시를 선택한다. 정보검토가 모두 끝난 후 '공유자료'에 가면 골라놓은 정보들만 볼 수 있고 이 '공유자료'는 공개화시킬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 삽입시키거나 다른 형태로 응용할 수도 있다.



<그림 17> Google Reader : 선별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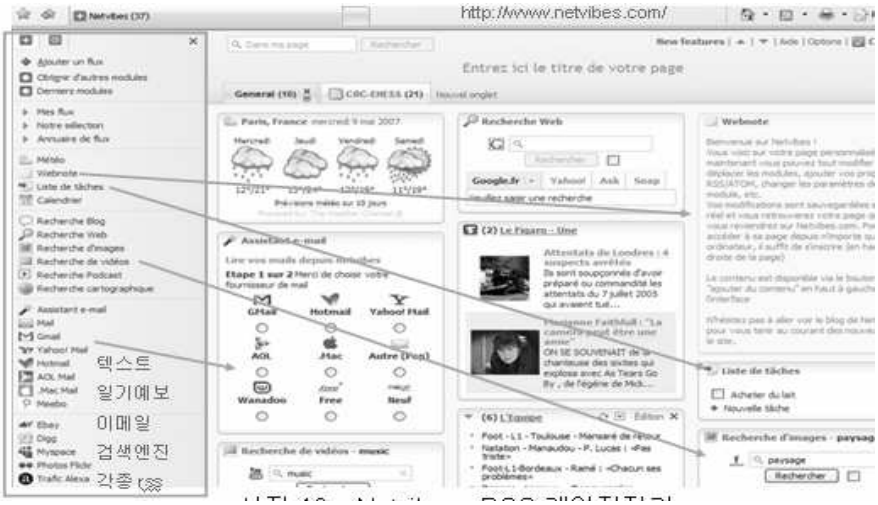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4.3. RSS 집적기 넷바입스(Netvibes)

RSS 리더 기능에 리젯기능을 첨가하여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하나의 웹페이지에 모을 수 있게 하는 기능성 웹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SS 리더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RSS 집적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iGoogle 이나 My Yahoo 같은 개인화 페이지도 리젯의 한 형태다.

이 개인 정보 편집기인 리젯 가운데 가장 사용이 쉽고 편리하여 최근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것은 넷바입스<그림 18>이다. 넷바입스는 여러 RSS 를 모아서 한꺼번에 읽어주는 RSS 리더의 기능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삽입할 수도 있고 즐겨찾는 웹사이트를 온라인 상에 저장하고 다른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으며 여러개의 이메일 계정을 한 페이지에 모아 놓고 각 계정에 들어온 메시지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다. 또한 웹하드처럼 1G 까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도 연결을 해놓았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Google 처럼 로그인과 아웃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개인 웹페이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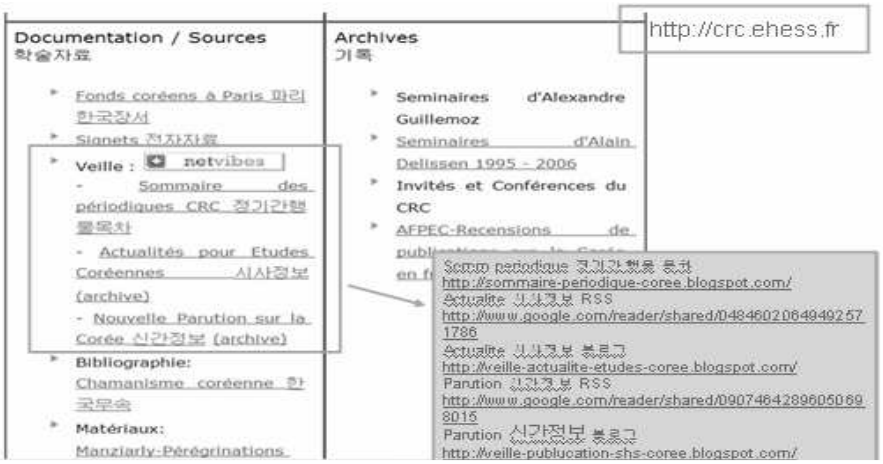
<그림 18> Netvibes : RSS 개인집적기

넷바입스 내에서 여러개의 탭을 자유로이 생성 삭제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탭을 공개화하여 다른이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 링크를 달 수도 있다. 개인 페이지에서 수집 관리한 정보를 공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예가 된다.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지기 서비스 세 가지(사례 6-1, 사례 6-2, 사례 7-1)를 하나의 웹페이지 상태로 서비스하는 데에 응용한 예를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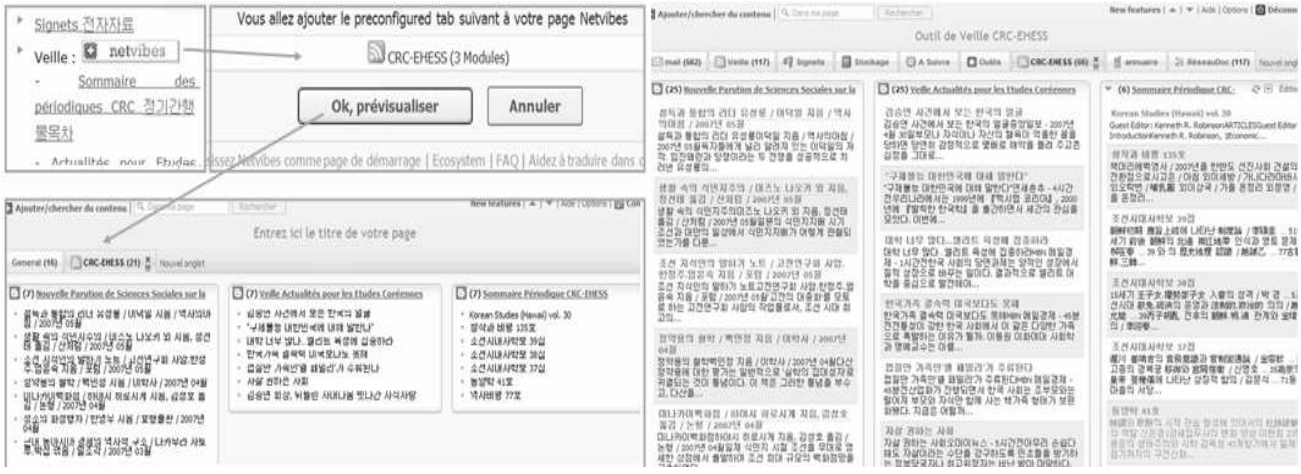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이 세 가지 서비스는 3 개의 블로그와 2 개의 공유 RSS 피드로 제공된다. 이 5 가지 RSS URL 을 모아 넷바입스 내에 하나의 페이지 (탭) 'CRC-EHESS' 를 만들고 공개화한다. 그 공개된 탭의 URL 을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웹사이트에 링크한다<그림 19>. 이 단계는 정보 생산자인 정보지기가 하는 작업이다.



<그림 19> 정보지기 :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이용자 차원에서는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사이트에 연결된 넷바입스 링크를 누르면 넷바입스로 연결되기 전에 공개된 페이지 CRC-EHESS 를 첨부할 것인지를 묻는다. Ok 로 대답하면 CRC-EHESS 라는 탭을 달고 있는 넷바입스를 열어준다 <그림 20>. 일단 넷바입스의 사이트가 공개 탭 CRC-EHESS 와 함께 열린 후에는 그 안의 리젯을 좀 더 읽기 편한 상태로 편집할 수 있고, 다섯가지 형태, 다섯개의 URL 로 제공되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다섯번의 클릭을 할 필요없이 CRC-EHESS 의 정보지기 서비스를 한 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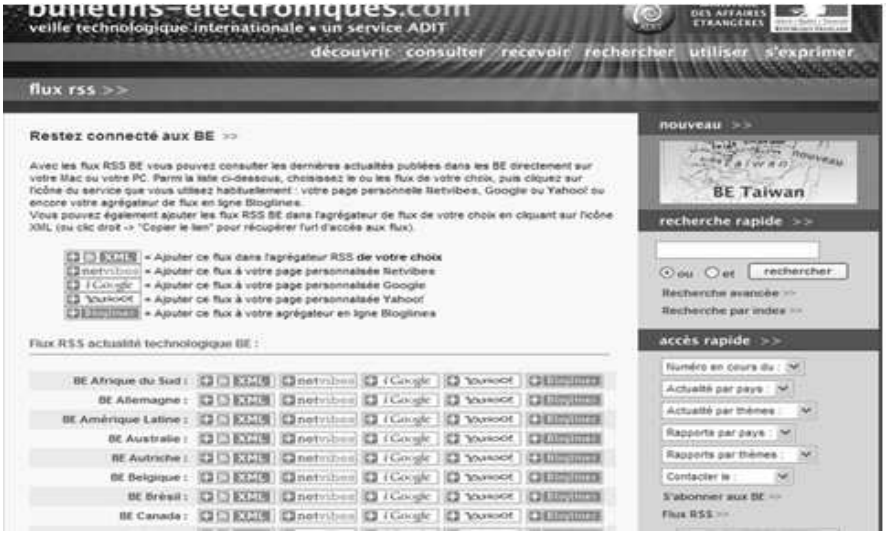
볼 수 있다. 물론 이 넷바입스 사이트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내용과 기능을 더 첨가해서 개인의 정보 편집기로 이용할 수 있다<그림 21>.

<그림 20> 정보지기 :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그림 21> 정보지기 :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RSS 를 읽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더들이 필요하므로 RSS 를 제공할 때 그 리더들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림 22>는 프랑스 외무성에서 제공하는 세계의 신기술 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지기 서비스인데 나라별로 구분하여 RSS 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옆에는 여러개의 RSS 리더 링크를 두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례 8 : RSS 피드 제공시 리더를 함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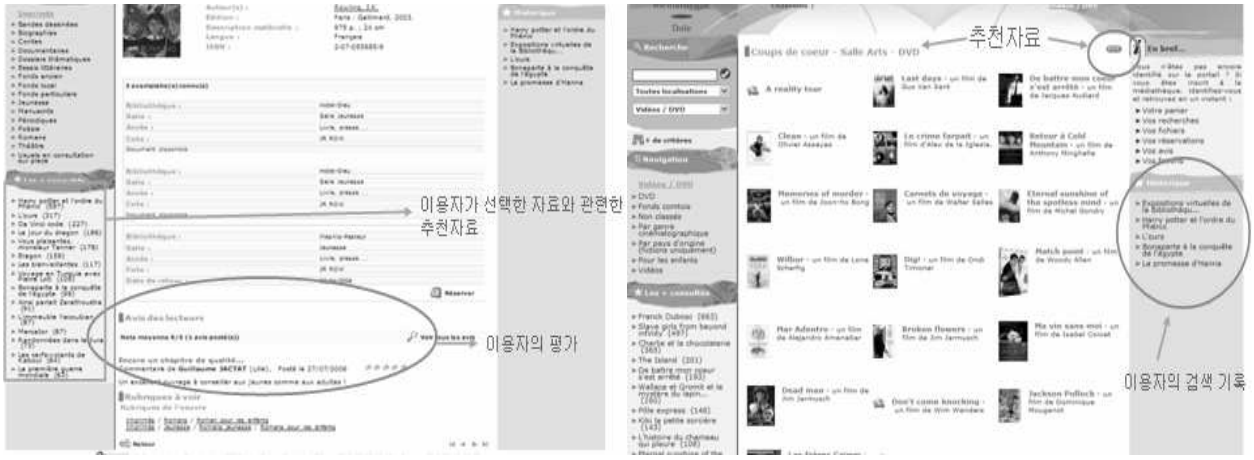


<그림 22> RSS 편집기 함께 제시

위에서 본인이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지기 서비스의 예와 함께 여러가지 정보개인화 도구를 통해서 누구나 개인의 필요에 맞는 정보지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런데 위에 소개한 도구들은 미리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정보지기에 적합한 도구이지만 한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공적인 정보지기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 두가지만 언급하자면 정보생산물의 소유권과 공신력이다. 위에서 본 예와 같이 정보지기의 결과물을 전달하는 도구로 블로그 포스트와 같이 사설기관에 속한 도구를 이용할 경우에 일종의 생산물인 정보데이터들의 소유와 관리권이 정보를 생산한 기관에 있지 않고 블로그 제공자에게 가게 된다는 점이다. 나중에 생산정보물이 많이 축적된 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려고 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정보지기 내용의 공신력도 사설 URL 을 사용하게 되면 정보지기가 소속된 기관의 공적 URL 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정보지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그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기능들을 정보지기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보지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응봉(2007)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방대하고도 다양한 정보자원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적인 정보환경 및 가상의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작업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보개인화 도구와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지기를 활성화하고 생산한 정보들을 재공유하도록 유도한다면 정보관리자가 모든 분야의 정보지기를 다 하지 않아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인 연구목적으로 선별하고 재구성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 정보지기 서비스를 기관에서는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4. 정보서비스 기관 웹사이트의 개인화 기능 제공

새로운 세대의 정보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웹 2.0 사상에 기반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또한 이용자 개인이 수집-편집-발표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 제공의 장을 생성하게 되고 개방하여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의 웹사이트도 이용자들과 대화하는 식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다이나믹한 사이트로 변신하고 있다.

사례 9-1 : 정보서비스 기관 웹사이트에 이용자의 참여가능성 제공

<그림 23>은 이러한 web 2.0 정신을 매우 잘 살린 도올 시립도서관의 웹사이트 서비스다. 이미 이 사이트가 자료 소개를 할 때 책 표지 사진이나 내용 요약이나 작가 소개 등 참고 정보를 풍부하게 서비스 하고 (사례 2-3), 특정분야에 대한 시사나 미디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사례 7-4) 살펴본 바 있다.

그 밖에도 도올 시립도서관은 이용자가 자료에 대해서 평가와 추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열람하는 자료에 따라 그와 관련된 참고자료도 추천해준다<그림 2>. 또한 이용자가 검색한 내용의 기록을 순서별로 나타내준다<그림 24>.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이용상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료검색과 이용을 돕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3>도올시립도서관 : 이용자의 서평과 추천　　<그림 24>도올시립도서관 : 이용자의 검색기록

사례 9-2 : 정보서비스 기관 웹사이트의 개인페이지 제공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그림 25>는 현대국제정보도서관 웹사이트로 여러가지 링크와 RSS 를 혼합하여 구성되었다. 도서관 소식, 출판잡지, 시사, 학술행사 등을 소개하는데 개인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개인 페이지에는 각 개인이 원하는 핵심어를 입력하면 신착자료에 해당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로 알려줌과 동시에 웹사이트 개인페이지에 개인용 참고문헌 목록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며, 이용자가 수집한 RSS 를 저장하여 시사 정보를 비롯해서 자주 갱신되는 정보를 볼 수 있는 RSS 리더 내지 집적기의 기능도 제공한다. <그림 26>은 개인 페이지에서 Korea 와 Corée 라는 주제어로 검색된 도서관 보유 자료들로 자동생성된 개인 참고문헌 목록의 예다.



<그림 25> 현대국제정보도서관 웹사이트



<그림 26> 현대국제정보도서관 사이트 개인화된 면

5. 결론

프랑스의 도서관과 기타 정보서비스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RSS 가 사용된 실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본 결과 RSS 기술이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과 편집을 위한 도구이며 그렇게 생산된 정보를 다시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SS 편집기를 통해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보를 선정 편집할 수 있어서 개인화되고 전문화된 정보 생산을 가능하게 해준다. 정보의 보급이나 개별적인 활용을 위해 이용자에게 RSS 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연관성있는 기관들이 상호협정을 통해 기관들의 웹사이트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웹사이트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 있을 뿐아니라 더욱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정보서비스 기관에게는 자체 정보를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RSS 화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욱 풍부해지는 외부 정보 중에서 고객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수집-편집하여 보급하는 정보지기 서비스도 정보서비스의 새로운 임무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정보지기 결과를 다시 RSS 로 보급하는 것이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임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도 없다. RSS 용도의 많은 부분은 이 정보지기 작업에 유용하며 정보지기 작업의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RSS 기술과 정보지기 작업 두 가지는 서로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보의 수집-편집-전달 기능을 반복하면서 정보가 이용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각색될 수 있고 전문성을 더해감으로써 질적인 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다. RSS 기술은 정보의 보급이나 공유를 넘어서 개인화를 허락함으로써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웹 2.0 의 주요 도구 가운데 하나인 RSS 기술은 무엇보다 정보의 개방과 공동활용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기관마다 자체정보들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대한 RSS 화하여 개방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그리고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정보지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들이 모여 작업의 분업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기관의 웹사이트 상에 고객이 그 개인의 필요와 기준에 따라 수집-응용할 수 있도록 RSS 편집기내기 집적기 기능을 제공하고 개별 기준에 따라 검색한 결과를 수시로 자동 전달해주는 RSS 에다 검색엔진을 결합한 기능을 첨가한 개인화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웹 2.0 세대의 정보서비스, 라이브러리 2.0 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작업들이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보관리담당자는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질적인 정보 재생산이 되도록 편집 감독자의 역할을 하고, 정보서비스 기관에서는 이러한 웹 2.0 의 움직임이 더욱 생산적으로 활성되도록 여러가지 필요한 기능과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구중억, 이응봉. 2006. Open API 기반 OPAC 2.0 서비스 구현 및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 (2): 315-332.

권이남, 김재수. 2004. 학회정보 개인화 지원을 위한 RSS 기반 유통 모델 연구. 『한국컨텐츠 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 (2): 545-553.

문용은. 2007. 웹 2.0 과 UCC : 기회의 땅. 『경제경영연구』. 8 (1) : 107-131.

이영석, 조정원, 김준일, 최병욱. 2006. 주제중심 수집기를 이용한 RSS 채널 추천 시스템. 『전자공학회논문지』, CI: 52-59.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

이응봉. 2007. 학술 도서관 디지털정보서비스의 향후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 (2): 181-202.

황의경, 문양세, 김혜숙, 김진호, 이상민. 2007. RSS 기반 블로그 에에젼트를 사용한 교육용 블로그 구현. 『정보통신논문지』, 11: 89-99.

도올(Dôle) 시립도서관. <http://www.dole.org/>, [cited 2007 6. 29].

데카르트 대학 (파리 5 대학) 도서관. <http://www.bu.univ-paris5.fr/>.

리옹 시립도서관. <http://www.bm-lyon.fr/decouvrir/accueil_decouvrir.htm>, [cited 2007 6. 29].

리옹 3 대학 도서관. <http://scd.univ-lyon3.fr/67507551/0/fiche_47__pagelibre/&RH=SCD-ACCUEIL&RF=SCD-OUTIFlux>, [cited 2007 6. 29].

삐에르 마리 퀴리 대학. <http://jubil.upmc.fr/repons/portal/>, [cited 2007 6. 29].

앙제대학 도서관. <http://bu.univ-angers.fr/index.php?S_file=rss/index.php>, [cited 2007 6. 29].

중세 역사 연구소. <http://www.irht.cnrs.fr/>, [cited 2007 6. 29].

팡테옹 소르본느 대학의 법학과 고급 전문과정(DESS). <http://dess-droit-internet.univ-paris1.fr/bibliotheque/>, [cited 2007 6. 29].

팡테옹 아싸스 대학. <http://www.u-paris2.fr/biblio/index.php?page=bib_univ>, [cited 2007 6. 29].

프랑스고등교육부 시청각자료 센터. <http://www.cerimes.education.fr/>, [cited 2007 6. 29].

프랑스고등교육부 포털사이트. <http://www.canal-u.education.fr/canalu/index.php>, [cited 2007 6. 29].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http://www.ehess.fr>, [cited 2007 6. 29].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CRC). <http://crc.ehess.fr>.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정보지기 서비스-시사정보전달 <http://veille-actualite-etudes-coree.blogspot.com/>, [cited 2007 6. 29].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정보지기 서비스-신간정보전달 <http://veille-publucation-shs-coree.blogspot.com/>, [cited 2007 6. 29].

프랑스사회과학고등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정보지기 서비스-정기간행물 목차 서비스 <http://sommaire-periodique-coree.blogspot.com/>, [cited 2007 6. 29].

칼렌다. <http://calenda.revues.org/>, [cited 2007 6. 29].

현대국제정보도서관. <http://www.bdic.fr/index.php>, [cited 2007 6. 29].

ADBS. [cited 2007. 6. 30]. <http://www.adbs.fr/site/repertoires/outils/rss.php>.

Bulletin des Bibliotheques de France (BBF). 2007. [cited 2007. 7. 1]. <http://blogbbf.enssib.fr/ >.

Couperin, <http://www.couperin.org/>, [cited 2007 6. 29].

GillesBalmisse.com. “Travail collaboratif, gestion documentaire.” [cited 2007. 6. 30]. <http://gillesbalmisse.com/v2/spip.php?article162>.

Jean-Christophe Brochard, Henriette De Daran, Delphine Coudrin, Jean-Charles Houpier et Chantal Simon. 2005. “Utilisation des fils RSS en bibliothèques.” <http://memsic.ccsd.cnrs.fr/mem_00000249.html>.

Lamoooche. <http://www.lamoooche.com/>, [cited 2007 6. 29].

Netvibes. <http://www.netvibes.com/>, [cited 2007 6. 29].

Plazoo. <http://www.plazoo.com/fr/>, [cited 2007 6. 29].

RssReporter. <http://rssreporter.blog-job.net/annuaire/html/>, [cited 2007 6. 29].

Service des bibliothèques de l'UQAM. 2006. [cited 2007 6. 29]. <http://www.bibliotheques.uqam.ca/informations/Bibliocliq/dossiers/rss.html>.

URFIST de Paris/ Ecole des Chartes. 2007. “Utiliser des fils RSS pour effectuer une veille informationnelle active.” [cited 2007. 7. 2]. <http://www.ext.upmc.fr/urfist/rss/RSS.htm>.

URFIST de Paris/ Ecole des Chartes. 2007. “Modalités d'appropriation des fils RSS, blogs et wikis pour une veille informationnelle active.” [cited 2007. 7. 2]. <http://www.ext.upmc.fr/urfist/rss/info_rss.htm>.

Web Sémantique : Charles Népote. [cited 2007. 6. 29]. <http://websemantique.org/RSS >.

Wikipedia. <http://biblio.wikia.com/wiki/Biblioblog>, [cited 2007 6. 29].

halshs-00271570, version 1 - 9 Apr 2008